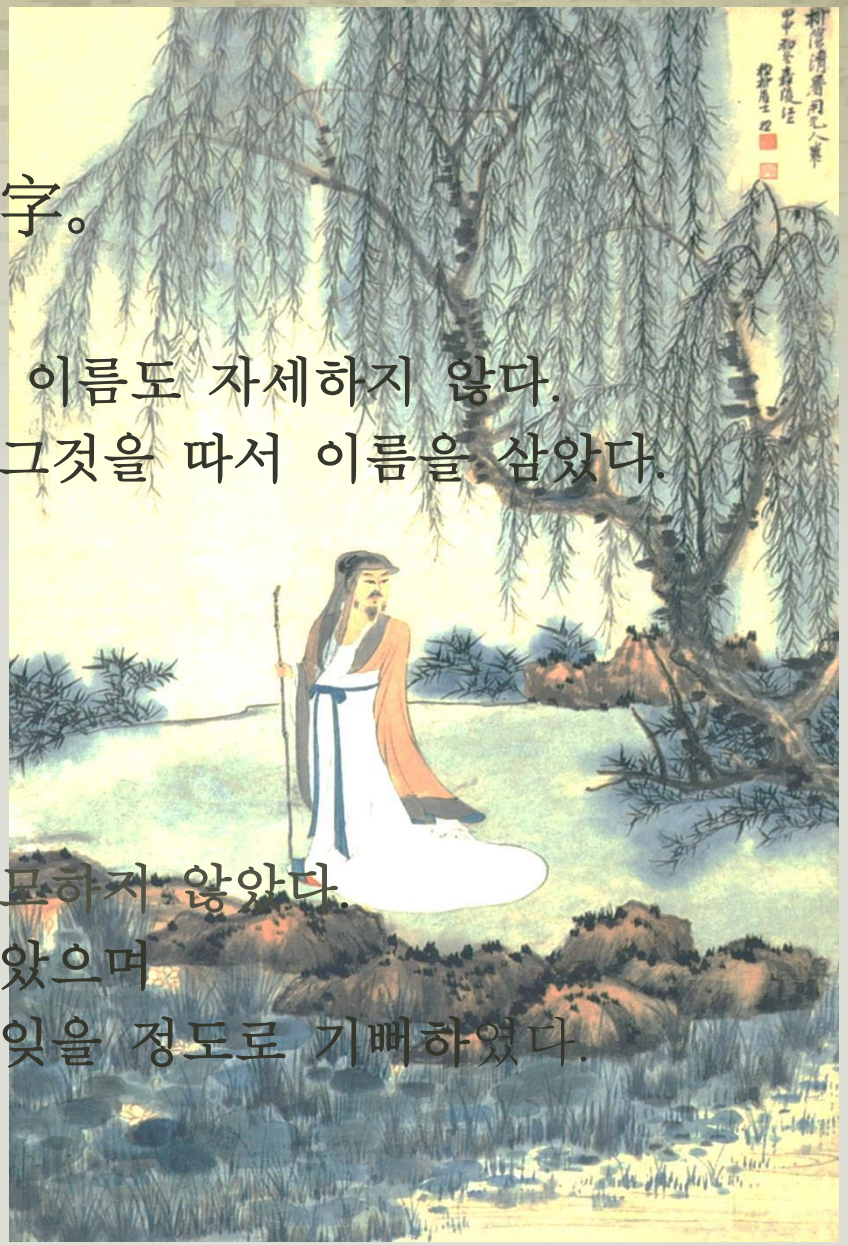
술과 국화의 시인, 도연명의 삶과 시

《五柳先生傳》



先生不知何許人也，亦不詳其姓字。
宅邊有五柳樹，因以爲號焉。
선생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 이름도 자세하지 않다.
집 주변에 다섯 그루 버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서 이름을 삼았다.

閑靜少言，不慕榮利。
好讀書，不求甚解；
每有會意，便欣然忘食。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부귀영화를 사모하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하였으나 깊이 따지지 않았으며
매번 뜻에 맞는 글을 얻으면 식사를 잊을 정도로 기뻐하였다.

性嗜酒，家貧不能常得。
親舊知其如此，或置酒而招之。
造飲輒盡，期在必醉；
既醉而退，曾不吝情去留。

성품은 술을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늘 얻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이를 알고 간혹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를 부르면
가서 마시는데 반드시 취할 때까지 진탕 마셨다.
취한 후에는 물러나는데 일찍이 가고 머무름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環堵蕭然，不蔽風日，
短褐穿結，簞瓢屢空，晏如也。
常著文章自娛，頗示己志。
忘懷得失，以此自終。

둘러싼 담벼락은 쓸쓸한데 바람과 햇빛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짧은 베옷을 기워 입고, 밥그릇 국그릇은 늘 비었으나 편안하였다.
항상 글을 지어 즐기며 자못 자신의 뜻을 보여주었다.
득실을 잊고 이렇게 살다 삶을 마쳤다.

귀원전거(歸田園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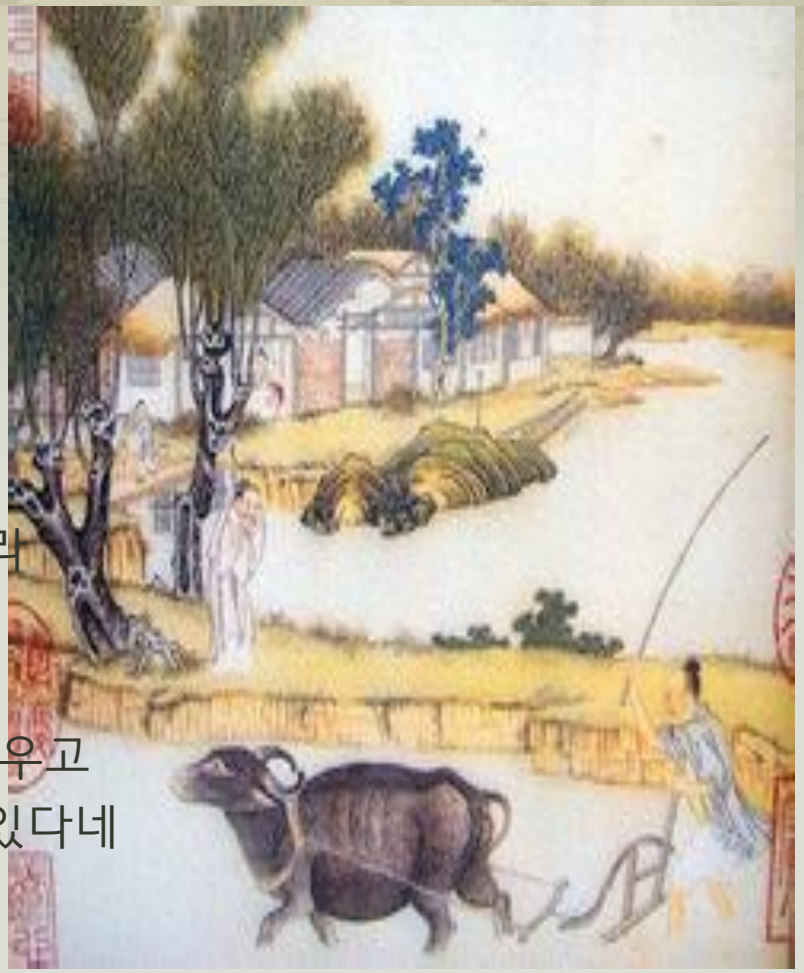
-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
- 羈鳥戀舊林 池魚思故淵

- 젊어서부터 세속에 맞는 기질이 없었나니
- 본성이 원래 산을 좋아했다네
- 잘못하여 먼지 그물에 떨어져
- 단번에 삼십 년을 보내버렸구나
- 갇힌 새는 옛 숲을 그리고
- 연못의 고기는 옛 못을 생각하는 법

귀원전거(歸田園居)

- 開荒南野際 守拙歸園田
- 方宅十餘畝 草屋八九間
- 榆柳蔭後簷 桃李羅堂前

- 남쪽 들가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 졸박함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왔노라
- 사방 택지는 십여 무 ,
- 초가집은 팔구 칸
- 느릅나무 버드나무 후원에 그늘을 드리우고
- 복숭아 나무 자두나무는 집 앞에 벌려 있다네



귀원전거(歸田園居)

- 曖曖遠人邨 依依墟里煙
- 狗吠深巷中 雞鳴桑樹巔
-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閒
- 久在樊籠裏 復得返自然

- 희미한 먼 마을에는 가물가물 올라오는 촌락의 연기
-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짖고 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우네
- 집 뜰에는 먼지 세상의 복잡함 없고
- 빈방에는 넉넉한 한가로움이 있다네
-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혀 있었음이여
-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네

화곽주부(和郭主簿)

- 藹藹堂前林 中夏貯淸陰
- 凱風因時來 回飈開我襟
- 息交游閒業 臥起弄書琴

- 무성한 집 앞의 나무들,
- 한여름에 맑은 그늘을 간직하고 있다네
- 남풍이 때를 따라 불어오고
- 회오리바람은 나의 옷깃을 열어준다네
- 교제를 멈추고 한가로운 일에 노니니
- 누웠다 일어나 책과 거문고를 즐긴다네

화곽주부(和郭主簿)

- 園蔬有餘滋 舊穀猶儲今
- 營己良有極 過足非所欽
- 舂秫作美酒 酒熟吾自斟

- 밭의 채소는 넉넉하게 자라있고
- 묵은 곡식은 아직도 남아 있다네
- 생활 영위함은 진실로 한도가 있는 법
- 지나치게 넉넉함은 바라는 바 아니라네
- 수수 찧어 좋은 술 담가 놓고
- 술 익자 내가 직접 따라 마신다네

화곽주부(和郭主簿)

- 弱子戲我側 學語未成音
- 此事眞復樂 聊用忘華簪
- 遙遙望白雲 懷古一何深

- 어린 자식 내 곁에서 놀며
- 말을 배우는데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네
-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또한 즐거우니
- 그저 이로써 화려한 벼슬을 잊는다네
- 아득히 흰 구름 바라보니
- 옛 사람 생각이 어찌 이리 깊은가

<장난삼아 정율양에게 드림戲贈鄭溧陽> - 李白

陶令日日醉　不知五柳春
素琴本無弦　漉酒用葛巾
淸風北窓下　自謂羲皇人
何時到栗里　一見平生親

팽택령 도연명은 날마다 취하여
다섯 그루 버들에 봄이 왔음 몰랐네.
장식 없는 거문고엔 본디 줄이 없고
술을 거를 적엔 칡베 두건 사용했지.
맑은 바람 불어오는 북창 아래에서
스스로 말했지, 복희씨 적 사람이라.
언제라야 내가 율리로 가서
평생의 친구를 한 번 보게 될거나?

책자(責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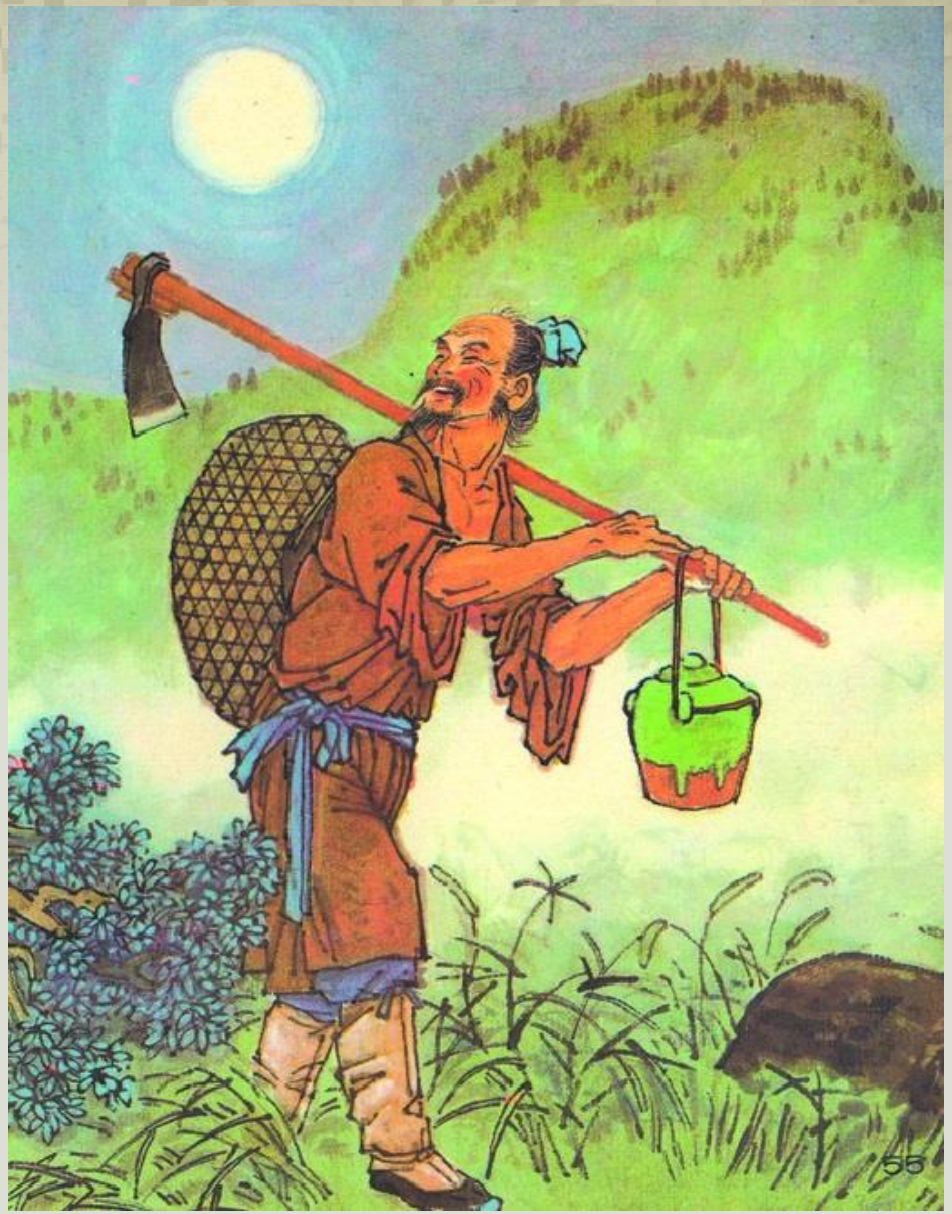
- 白髮被兩鬢 肌膚不復實
- 雖有五男兒 總不好紙筆
- 阿舒已二八 懶惰故無匹
- 阿宣行志學 而不愛文術
- 雍端年十三 不識六與七
- 通子垂九齡 但覓梨與栗
- 天運苟如此 且進杯中物

- 흰머리가 양 귀밑에 덮이고 살결도 이제는 실하지 못하다네
- 비록 다섯 아들이 있지만 모두 종이와 붓을 싫어한다네
- 아서는 벌써 열 여섯이건만 게으르기가 진실로 짝이 없다네
- 아선은 열 다섯이 되어 가는데 글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네
- 옹과 단은 나이가 열 셋인데도 여섯과 일곱을 구분하지 못한다네
- 통이란 녀석 거의 아홉 살이 되는데 단지 배와 밤만을 찾는다네
- 타고난 운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그저 술이나 들이킬 밖에

귀원전거(歸園田居其三)

- 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 道狹草未長 夕露沾我衣
- 衣沾不足惜 但使願無違

-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 풀만 무성하고 콩 싹은 드물구나
- 새벽에 일어나 거친 풀을 매고
- 달빛 두르며 호미 메고 돌아온다네
- 길은 좁고 초목은 길게 자라나
- 저녁 이슬이 내 옷을 적신다네
- 옷이야 젖어도 아쉽지 않지만
- 다만 바람이나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이거(移居)

昔欲居南村　그전에 남촌에서 살려고 하였던 것은
非爲卜其宅　집자릴 좋게 정하려 해서가 아니었다.
聞多素心人　소박한 마음 지닌 사람이 많다고 들었기에
樂與數晨夕　조석으로 만나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였다.
懷此頗有年　이 일을 생각한 지 꽤 여러 해 지났는데
今日從玆役　오늘에야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弊廬何必廣　허름한 집 넓어서 무엇하리
取足蔽牀席　침상과 앉을 자리 가리우면 족하다.
隣曲時時來　이웃이 때때로 찾아와 주어
抗言談在昔　주고받는 대화는 옛날을 말하는 것
奇文共欣賞　묘한 글, 함께 즐거이 감상하고
疑義相與析　의문나는 뜻은 서로 같이 분석해 본다.

산중여유인대작(山中與幽人對酌) - 李白

兩人對酌山花開
一杯一杯復一杯
我醉欲眠卿且去
明朝有意抱琴來

두 사람 마주해 술 마실 제 산 꽃이 피었구나
한 잔 한 잔 또 다시 한 잔.
나는 취하여 잠들고 싶으니 그대 우선 가시게나
내일 아침 생각 있으면 거문고 안고 오시게나.

송서 도잠전(宋書·陶潛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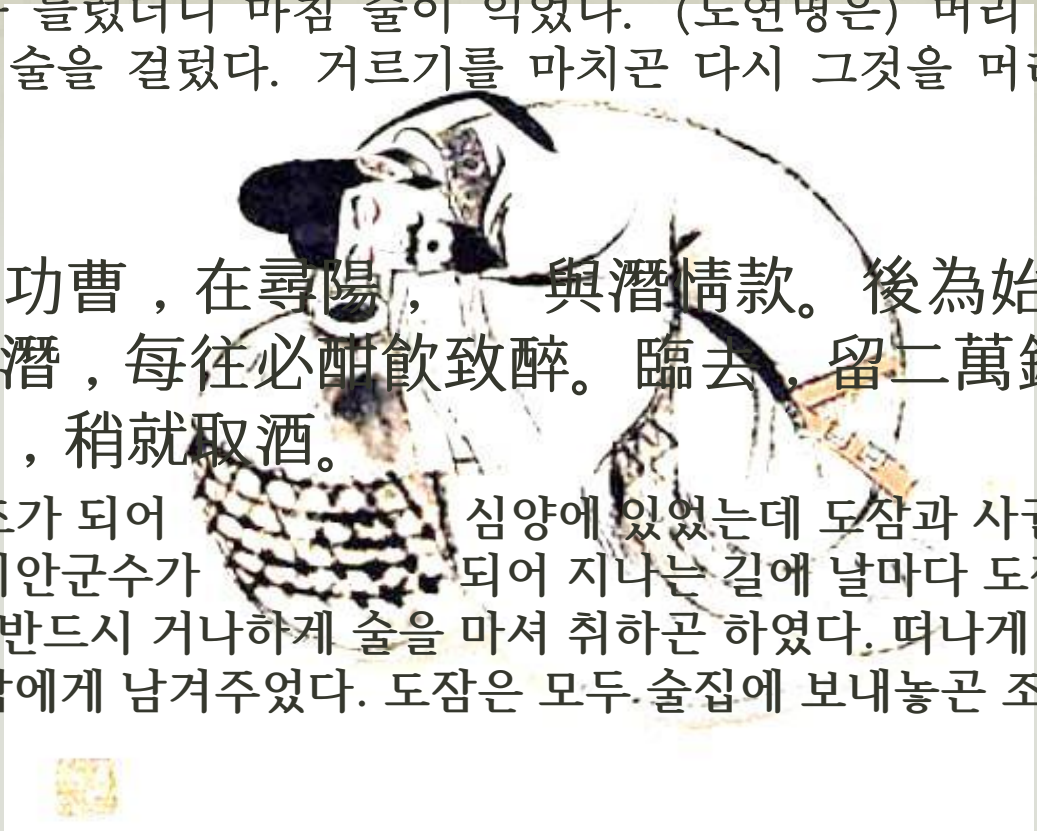
- 潛不解音聲，而畜素琴一張，無弦，每有酒適，輒撫弄以寄其意。貴賤造之者，有酒輒設，潛若先醉，便語客：“我醉欲眠，卿可去。”其真率如此。

陶潛은 음률을 알지 못했지만 장식이 없는 소금素琴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이 없는 상태였다. 매번 술을 마셔 기분이 도도해지면 그 때마다 연주하듯 어루만지며 뜻을 기탁하곤 하였다.

신분이 높든 낮든 손님이 왔을 때에는 술이 있으면 바로 술을 차려냈다. 도잠이 만약 먼저 취하면 이내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취하여 자고 싶으니, 그대는 가시는 게 좋겠소.”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

《송서 은일전(宋書·隱逸傳)》

- 郡將候潛，逢其酒熟，取頭上葛巾漉酒，畢，還復著之。
- 군수가 도잠에게 인사차 들렀더니 마침 술이 익었다. (도연명은) 머리 위의 갈건을 벗어 가지고 술을 걸렀다. 거르기를 마치곤 다시 그것을 머리에 썼다.



- 顔延之為劉柳後軍功曹，在尋陽，　與潛情款。後為始安郡，經過，日日造潛，每往必酣飲致醉。臨去，留二萬錢與潛，潛悉送酒家，稍就取酒。

안연지가 유류의 후군공조가 되어　심양에 있었는데 도잠과 사귐의 정이 돈독했다. 나중에 시안군수가　되어 지나는 길에 날마다 도잠에게 갔다. 매번 갈 때면 반드시 거나하게 술을 마셔 취하곤 하였다.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만 전을 도잠에게 남겨주었다. 도잠은 모두 술집에 보내놓곤 조금씩 가서 술을 마셨다.

〈음주(飮酒)〉 제5수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辯已忘言
사람들 사는 곳에 오두막집 엮었으나
수레와 말의 시끄러움이 없도다
묻노니 그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어지니 땅은 절로 외지는 법
동쪽 울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멀리 남산을 바라본다네
산 기운 저녁 되어 아름다운데
나는 새들 더불어 돌아간다네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려니
따져서 말하려다 이미 말을 잊었노라

〈음주(飮酒)〉 제7수

采菊东篱下　180cm×90cm

秋菊有佳色　裛露掇其英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
一觴雖獨進　杯盡壺自傾
日入群動息　歸鳥趨林鳴
嘯傲東軒下　聊復得此生

가을 국화가 아름다워
이슬에 젖은 꽃을 딴다네
이 꽃을 근심을 잊게 하는 술 띄웠더니
나를 멀리 보내 세상을 잊게 하네
한 잔 비록 혼자서 들지만
잔 비우면 술병은 절로 기운다네.
해 지자 뭇 동물들 다 쉬고
새들도 울며 수풀 향해 돌아간다네.
휘파람 불며 동쪽 창 아래서 우쭐대나니
그럭저럭 다시 얻은 나의 이 삶이여!

만가(挽歌)

-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 昨暮同爲人 今旦在鬼錄
-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 但恨在世時 飮酒不得足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법 일찍 죽어도 명이 짧은 것은 아니라네
어제 저녁 함께 사람이었더니 오늘 아침 귀신의 명부에 있구나
혼은 어디로 흩어졌는가 마른 몸만이 빈 나무에 걸쳐 있어라
사랑스런 아이는 아비를 찾아 울부짖고 친한 벗들은 나를 쓰다듬으며 우는구나
득도 실도 알지 못하거니 시와 비를 어찌 알 수 있으랴
천년 만년 뒤에야 누가 영화와 치욕을 알까
세상에 있을 적 오직 한스러운 것은 술 마심이 족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네

http://kansawi.egloos.com/5680673

- 정선, <동리채국도東籬彩菊圖>, 지본 수묵담채, 21.9×59.0㎝, 국립중앙박물관

http://cafe.naver.com/mhdn/22589

- 정선,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 종이에 먹, 22.4×62.0㎝, 국립중앙박물관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
chla.com.cn

《陶淵明採菊》[明] 陳洪綬

心遠
地自
偏歲
在戊
寅冀
抱沖斟
主江東
寧嘗

陶淵明

恥事二姓克全三綱
高志遠識播之詞章

扁舟一棹歸何
處家在江南
黃葉村
庚辰春二月
懷民周仁